

[QT 세미나]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3)

이상규 목사 / 2000/ 페이지수: 2

큐티의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 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한 큐티는 이미 성령의 임재가 깃든 성소와 같다. 사람은 성령의 임재속에서 그 존재의 본질이 바뀐다. 그리스도인 이라면 누구라도 성령의 임재체험, 하나님 체험이 한번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이 그저 과거에 한두번 있었던 간증일뿐 현재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고 정체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해답은 '일상성'에 있다. 사람의 변화는 한번의 감동적인 체험이나 이벤트에 의한다기 보다 그가 항상 몸담고 있는 '일상'에 의해서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 같다. 물론 일주일에 한번 있는 감동적인 예배, 설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한주간 내내 몸담고 있는 세속 사회의 매혹적인 분위기와 끊임없는 위협들이 우리의 신앙적 결단들을 얼마나 자극, 무력화시키는지..

벗어날 수 없는 '일상'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일상성'의 무서운 저력에 대해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철학자도 신학자도 이제는 '일상성'을 중요한 주제로 다룬다. '일상성'은 지긋지긋 하지만 만일 그것을 벗어난다면 실직이나 범죄자, 사회부적응자로 전락하는 것이므로 벗어날 수 없는 두려운 굴레이다. 기존의 '일상성'은 자산의 본질과 다른 것은 경계하거나 핍박한다. 따라서 기독교가 현대의 '일상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교회에만 머무는 기독교 동아리, 평일의 일상세계에서는 무력한 주일신자(Sunday Christian)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곳'에 있지만 '그곳'에 사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 현대의 일상성의 하늘과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있는 (빌 3:20)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날마다(!)' 거하는 대안적 일상성을 회복해야만 한다. 이것은 '일상성' 간의 싸움이다. 나의 가장 깊은 존재의 밑그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큐티의 변화시키는 힘은 단순히 한두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 한시간 정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보좌 지성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다.

거기서 주님을 뵈옵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 이 구태의연한 '일상성'의 땅에 솟은 들풀과 하늘을 나는 새를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며 먹이시고 계셨음을 비로소 보게되며, 지긋지긋하고 경박하기까지 한 이 '일상성' 속에서 면면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포착하여 매일의 일상속에서도 드디어 비범한 하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큐티란 무엇인가

“QT란 Quiet Time의 약자로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성경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뜻, 계획)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하는 경건훈련이다”

* 출처 : Q T 신 문 (2000. 11. 26)